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오늘 개막 신명난 마당에서 한판 놀자!

4일까지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서
탈놀이·마당극·서커스 등 공연 풍성
루프탑 콘서트·그림자극 경연대회
킬러콘텐츠 '로컬스토리 5선' 눈길

공연예술축제의 명성을 지켜 온 제22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하 미마프·MIMAF)이 '신명난 마당에서 놀자!'라는 슬로건으로 2일부터 4일까지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에서 열린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극단 갯돌이 주관하고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대표 순수 민간 예술축제다.

올해 미마프 축제 개최장소는 80년대 목포 변화가의 상징 수문로다. 축제구성력 또한 공간에 적합한 콘텐츠를 배치해 기대를 모르고 있다.

공식행사인 개·폐막 놀이를 비롯해 국내 초청작, 예향남도 초청작, 목포 로컬스토리 5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특히 3년 만에 거리로 돌아온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대거 유입돼 목포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단위 시민 약 500여명이 참여할 '개막 놀이'는 수문로 거리에서 신나는 댄스를 즐기는 메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다.

북향 노을공원을 비롯한 관내 9곳 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시민과 아리랑 난타, 산정동, 만호동, 삼향동 풍물패 등 국악 애호 시민이 참가해 풍물 난장과 댄스로 화려한 개막을 연다. 목포의 명물로 알려진 4m 높이 거대인형 육단이와 근대를 상징하는 거대인형 4인방도 가세해 볼거리를 선사한다. 폐막 놀이는 다가올 추수를 맞이해 울게심니 마당극으로 풍년을 기원하며 마감한다.

미마프 축제는 총 50여 팀이 넘는 공연단이 초청됐다. 탈놀이, 마당극, 서커스, 마술, 콘서트, 인형극, 댄스 등 볼거리도 다채롭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탈놀이', 극단 자갈치의 '마당극 드루와 시크릿 미용실', 천하제일탈공작소의 '탈춤', 환술극단 담의 '전통 마술', 안해본소리 프로젝트의 '팔도보부상 이야기보따리', 때레계의 '아프리카 음악과 춤'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예향남도 초청작에는 광주 히비스 밴드의 하와이안 음악과 춤, 광양 양향진 명인의 버꾸놀이, 여수 김길선류 북놀이 협회의 북놀이, 진도 강은영 명인의 북춤, 영암 기예무단의 무예 공연 등으로 관람객과 함께 한다.

킬러콘텐츠로 유명한 '목포 로컬스토리 5선'은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꾸며진다.

'목포 로컬스토리'는 목포 원도심의 특별한 공간을 선정, 여행자들에게 로컬 체험으로 만족도를 높이는 최고의 프로그램이다. 이번 '목포 로컬스토리 5선'은 100년 전 목포의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은 스토리를 코스와 한 투어프로그램 '물을 찾아서', 1924년 시민의 힘으로 세운 '목포청년회관'을 스토리화 한 시민영화 '청년회관' 시사화, 유달산 노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수문로 루프탑 콘서트, 8개 팀의 가족이 그림자극으로 열린 경연을 하게 될 '가족 그림자극 경연대회', 뮤지컬 배우 하진솔이 여행자와 함께 100년 전 조선인 마을을 돌면서 근대가요 콘서트를 갖는 '진솔이와 놀아요 동네 한 바퀴' 등이 개최된다.

프린지 행사로는 수문로와 목원동에 거주하는 아티스트들



마당페스티벌 개막놀이



고성오광대놀이의 탈놀이



서커스 서남재의 폴로세움



극단 자갈치의 마당극 드루와 시크릿 미용실

의 '목원상점 프리마켓'이 열리고, 손기술 장인들의 혼이 담긴 물건과 맛을 싼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수문로 손맛페어', 한국의 버스킹으로 콘텐츠를 살린 '굿썸', 영화 촬영을 위해 맘 흘린 시민배우들의 기록 '시민영화 메이킹 필름'을 유튜브 브릿지 TV에서 오픈한다.

한편, 축제기간인 2일부터 4일까지 매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는 수문로 구 신안군청 사거리부터 불종대 도로가 부분 통제되며 이 구간을 지나는 일부 버스노선도 우회 운행한다. 행사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